

한국임업신문기사 2010년 7월 1일

한국임업신문

THE KOREA FORESTRY NEWS 2010년 7월 1일 목요일 제664호

“산림 공익혜택 ‘산림직불제’ 도입하여 산주에 혜택줘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하계연찬회서 하문섭 회장 주장 ‘회원들 공감’

“연간 72조원의 산림공익혜택 국민은 대가없이 받고 있는 것” 알아야 강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하문섭)는 지난달 15·16일 이틀동안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문화원진흥원에서 전국 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를 갖고 산림경영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연찬회는 정광수 산림청장을 비롯해서 하문섭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서경석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이창재 남부지방산림청장, 이상길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남일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동휘 안동시장, 안호익 안동시산림조합장

등 내외빈과 회원·회원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특강을 통한 산림경영 경쟁력강화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산림청에서 산림경영 정책지원 내용을 소개했고, 산림경영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임업경영기술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안동시에 자리잡고 있는 경북산림생태공원을 방문했으며, 안동시의 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둘러보며 회원결속을 다졌다.

하문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산림은 국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권 문제의 해결사이며, 국토보존의 기능을 하며, 지구온난화 문제, 교토의정서

대비, 목재의 자금자족 문제 등 녹색성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은 대가없이 산림에서 얻은 연중 72조원에 이르는 공익적 이익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림의 공익적 이익일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산주에게 돌려주는 직불제 실시를 200만 산주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산림공익혜택 ‘산주직불제’로 산주에 혜택줘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연찬회에서 정부에 촉구

산림의 공익혜택이 날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으나 산림공익 혜택의 수혜자인 국민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른 산주·임업인의 부가가치는 제로(0)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산림의 공익혜택 제공 주권자인 산주들에게 산림공익혜택의 일부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200만 산주들중 산림소유 규모가 큰 산주들의 단체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하문섭)는 최근 하계연찬회를 가진 자리에서 산림의 공익혜택을 산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의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산림직불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연찬회에는 정광수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협회의 ‘산림직불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광수 산림청장은 연찬회 격려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산림행정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제난, 기후변화 등 국가의 어려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하계총회에서 하문섭 회장이 산림직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산림분야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 산림이 있으며, 일지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에서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이 핵심사업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아울러 “산림청은 모범적으로 가꾸고 관리해 온 산림을 임업인의 교육·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입장에서, 기업인의 입장에

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청정임산물을 가공·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지 약용식물 등 시장잠재력이 높은 임산물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워 나가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을 위한 산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화(전 내무부장관·산림청장) 임업인로는 연찬회 특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예산담당부서도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산림녹화시절에 국가예산을 산림에 많이 투입했던 것에 비례하여 매년(임업예산율) 증액하여 산

림경영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산림경영으로 돈벌이가 되게 해야하며, 조경수 수종도 우리 산에 있는 수종으로 식재해야 하고, 산에 길 내고 관리자 짓고 수원확보용 댐(못)안들고 조경목 굴취하는 것 등은 산림소득보장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에 너무 한 그루 심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무조건 사대질하며(산림경영에 의한 산지관리) 반대하는 양상은 시장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기를 만드는데 비용이(일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간 26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산림의 공익적 수익이 연간 72조원이나 되는데 신선한 공기에 대한 보상을 산주들은 한 톨도 못 받고 있다”며, “일부라도 주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작은 산소 공장을 합니다” 창조적 희생이 요구되는 산림

송인문 독립가 / 양지임업 대표

윤해민 기자

과거 우리나라는 맑은 물, 울창한 숲으로 어디에서나 목을 축일 수 있었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놓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생물의 다양성 보전, 경관보전, 보전치유 등의 기능을 지닌 숲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산천이 푸르게 물들어 가는 4월, 양지임업 송인문 대표를 만나 그가 일구어 나가는 희망 가득한 내일을 바라보았다.



독립가(獨立家)
산림경영인협회 감사
대구유도고단자회장 역임
1990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국 유도선수단장 역임
한·일 유도친선 교류 한국선수단장 역임

피할 수 없는 골림을 선택하다

약속 장소에 미리 나와 있던 송 대표가 기자에게 손을 흔들며 보내는 미소는 마치 친할아버지가 손녀를 기다리던 중 반가운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그런 것이었다. 또 그것은 그날의 쾌청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그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단면 약 56ha에

이르는 산림을 소유하면서 독립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사실 저는 산은 그저 묘지 터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 문교부장관을 역임하신 문희석 씨가 작성했던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첫째로 자영업을 하고, 둘째는 저서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심



숲을 이룬 영자산림

“그런 것이었죠.”라며 송 대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초연한 말을 건넸다. 덧붙여 그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농업대학 출신 동료로부터 좋은 산이 있는데 함께 동행 할 것을 제안 받은 것이 현재의 송 대표로 이끌어 온 것이란다. 그곳이 바로 그가 산림을 하기로 결심한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에 위치한 새벽양지. 새벽양지로 불리는 까닭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 새벽에 햇벌이 가장 먼저 들기 때문이며 송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에텐동산과도 같은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에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재산이라며 나무를 심어 가꾸어보라 했지만 당시 송 대표는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돌아간 뒤 그 산을 오르내리는 꿈을 꾸게 되었고 재차 그곳을 찾으며 그만의 경지를 개척하게 된다.

도전, 실패, 그리고 성장

허나 그것은 송 대표에게 있어 엄청난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이유인 즉,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고추 한 포기 심어본 일 없는 그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묘목을 심으면 절로 자라 숲을 이룰 것이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 송 대표는 풍토를 점검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하여 심었으나 이듬해 거의 말라죽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현(現) 김천 산림과 김종생 과

장이 “왜 자력으로 심어 고생하십니까? 김천시에 요청하면 묘목과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 찾아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받아 조림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저는 그것이 심으면 전부인 줄만 알았지 뭐니까. 풀과 칩덩굴이 어린 나무를 휘어 감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예작업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며 나무를 심은 후 5~6년 사이가 가장 힘든 시기임을 일러준다. 그때 이 나무가 자라 숲이 되어 그 밑을 거닐어 보았으면 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도 년지시던진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고 약 10년이 지나자 장엄한 숲이 되어 꿈은 현실로 다가왔고,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숲속을 거닐며 아름드리나무와 말없는 대화를 한다고. 땅거미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장성한 아들을 재차 쓰다듬듯 ‘네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하며. 하지만 사업이란 항상 순탄치만은 않다. 송 대표 역시 그러했다. 김천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와 매미가 산림과 도로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다. 다행히 김천시에서 본래의 형태



▲ 40년 전 양지산림개발 모습(왼쪽), 양지산림개발을 방문한 가족(오른쪽)

보다 더 잘 복구해주어 지금은 포장된 인도로 승용차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으니 그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였던 것 같이라며 만족한 웃음을 짓는다.

나무를 가꾸듯 건강을 유지해야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입장에서는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까 싶겠지만 산을 오르내려야 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터이다. 이에 7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송 대표의 건강이 염려된 기자는 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그는 “제가 근육으로 다져진 체격이라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하며 빙그레 웃는다. 아닌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그 누가 따라 오지 못할 기계체조 실력의 소유자였으며 제 3·4대 대구유도고단장회장을 역임하기까지 유도로 스스로 몸을 다져왔었다. 기자가 괜한 걱정을 한 듯싶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던 시절에는 가난을 이기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하는 송 대표는 강한 긍정의 힘을 지닌 소유자가 아닐까 싶다.

메마르지 않는 사람

한편 송 대표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이라면 그가 인정이 넘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할 것이다. 그것은 학창시절부터 것처럼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친구들에게 가정교사를 소개시켜주고 그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준 송 대표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지도한 제자 한 명, 한 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외부인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경상도 특성을 무마시켜 김천시민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오는 사실만 보아도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자명하게 드러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송 대표는 수종(樹種)갱신을 계획하며 그의 아들에게 임업을 이어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비록 헌신에 비해 성과가 뒤늦게 따라 오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고 깨끗한 미

래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음이라. “임업을 시작하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일본 북해도 원주면 아이누 족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 아칸호수의 3,590ha 산림을 소유한 마에다(前田正明) 씨의 후손은 그의 사(死) 후 그것을 모두 국가에 헌납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 산림기념관이 있는데 마에다 씨가 남긴 ‘이 산림은 개인 상속하지마라, 자연을 보존하라’는 유언을 읽으면서 손바닥만 한 땅에 나무를 심고 몇 십 년 후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욕심을 버리는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이어서 송 대표는 임업은 있으나 점차 임학이 사라지고 있음에 한탄했다. 그러나 독립가 모임에 참여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임학과 전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그러한 마음이 동요될 리 만무하였다. 그러는데다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고 임간에 단기소득 작물을 심는 등 산림기능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라 돈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인에게 전파하고 싶어 했다. 이렇듯 송 대표는 산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신선함을 나눠주고 있었다. **WP**

※산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song2112@naver.com으로 메일을 전송하면 송인문 대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



▲ 요목직업, 일본산림탐방 시, 자라난 나무와 함께, 올림픽 안병근 기념유도관 기념비 앞에 새워쪽부터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화 한다

돈버는 임업기반 만들고, 50~75% 강도간벌로 육림효과 ↑

산촌체험·휴양·관광수요 촉진 국민정서·공익가치 높여 정광수 청장, 산청군 시범단지서 현장토론 지원방향 모색

산림청의 산림복합경영 지원 방향이 새롭게 마련된다.

산림복합경영 규모를 대규모 단지로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한편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증진과 강도간벌을 통한 육림효과 증대는 물론 임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돈버는 임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와 추진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에 선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산청군 차황면 우사리 산39번지 약80ha의 산림복합경영현장에서 현장토론회를 갖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정광수 산림청장, 이상길 산림청 차장, 남성현 기획조정관, 윤영규 산림지원국장, 허경태 산림이용국장, 김남준 산림보호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급 전원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산림과장, 독립가, 임업추계자, 산림공무원, 전문임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가운데 열려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광수 산림청장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추진하는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와 지원사업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최대의 정책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는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실효성이 높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내다보는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의 사업을 통한 효과는 산림복합경영을 위해 50~75%의 강도간벌을 실시함에 따른 육재림 육림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한편, 대규모 단지화로 일도 등 인프라이가 잘 구축되어 산림체험 수요를 늘리고 산림휴양·관광수요를 늘려 돈버는 임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높인다는 것이다.



'돈버는 임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1회 산림정책 현장토론회가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 차황면 산림복합경영 현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정광수 산림청장(앞줄 가운데)이 임업인들과 현장을 돌이보고 있다.

특히 신규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효율성을 높여 손에 쥐어지는 실질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돈버는 임업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산림청 과장 이상 간부 전원과 임업인 지자체 산림공무원이 함께한 토론회 자리에서 산청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와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산림복합경영 규모화가 개인산주는 힘들 것"이라며 "소규모 산주와 시·군지 자체와 산림조합이 힘을 합쳐 경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면(경영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산청군의 과감한 사업 시도는 산림의 이용기능을 높였고, 산림체험·휴양 등등의 다양한 수요촉진과 산림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늘려 산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숲의 나무를 우량목재로 잘 가꾸면서 산주는 산에서 단기소득을 창출하는 돈버는 임업정책추진 일환으로 산림복합경영 대규모 단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3면)